

大丘邑城과 嶺南第一關(南門) 重創에 對한 小考

徐正男
(大亞建築設計事務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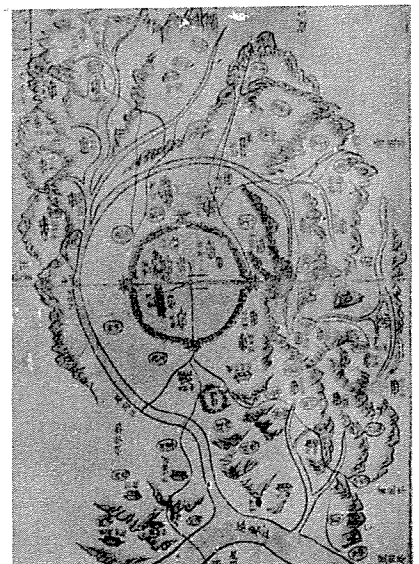
1. 大丘邑城(土城)의 築造

우리나라에는 古來로 山城을 防守의 要衝으로 重視하고 平地에도 府邑에 城池를 築造한 例가 있다. 大丘에 城이 築造된것은 山城에 속하는 達城은 三國時代以來 여러차례 加築된 바 있지만 邑城이 築造된것은 壬辰倭亂 直前의 일이다. 宣祖二十三年(1590)에 이르러 倭寇의 患을 우려하여 土城을 당시 大丘府使 尹峴이 善山 軍城 仁同의 三個 邑民을 徵集하여 大丘府民과 더불어 築城(土城)을 完了했다고 大丘府邑誌는 記錄하고 있다. 特히 慶尙道는 日本에 直面하는 要衝인 까닭으로 城池 修築이 가장 많아 釜山 東萊, 密陽, 金海, 多大浦, 昌原 咸安 등의 諸城을 增築하였고 大丘府城과 더불어 築城된것은 淸道, 星州, 三嘉, 永川 慶山, 河陽, 安東 등의 邑城이 있다. 大丘 土城築造 年代에 관해서는 大丘府邑誌 營先生 尹峴條에서는 宣祖二十三年에 完功한 것 처럼 記錄되어 있고 한편 宣祖 實錄二十六年 閏十一月十四日條에 실린 原任 領議政 鄭澈 등의 陳情文에는 淸道, 星州, 三嘉, 永川, 慶山, 河陽, 安東, 尙州의 邑城과 한가지로 宣祖二十四년에 築城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므로 大丘邑城의 築造는 宣祖二十三年(1590)에 着工하여 翌二十四년에 完工한 것으로 推測해 둠이 옳을 것 같다. 宣祖二十五年(1592)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四月二十一日 大丘에 맨 먼저 侵攻한 倭將 小西行長의 軍에 의하여 毀破되었다. 이후 140餘년이 지난 英祖때 土城을 石城으로 새로 築造한 後의 築城碑에 府治의 北쪽에 土城遺址가 있으나 언제 創築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壞滅되고 말았을 뿐 아니라 具體的인 規模에 관해서는 지금 알길이 없다.

2. 大丘邑城(石城)의 築造 및 規模

宣祖三十四年(1601) 慶尙道 監營이 大丘府로 移置된후 大丘의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 重要性이 認識되었으나 朝鮮王朝 後期 社會의 無力으로 英祖때까지 百數十年이 지나도록 大丘府城의 築造가 實現되지 않았으며 그간 東萊에서 大丘에 이르기까지 城池가 없어 東萊, 密陽, 慶州, 永川, 大丘 등에 城鎮을 만들어 倭賊에 對한 防備의 必要性을 수차례 主張하였으나 朝臣들간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여 築城의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英祖十一年에 大丘로 到任한 慶尙道 觀察使 兼 大丘都護府使 閔應洙의 建議를 朝廷에서 받아들여 英祖의 允許를 얻어 築城의 實現을 보게 되었다. 築城碑에 의하면 英祖十二年(1736) 四月八日(癸卯)에 伐石을 시작하고 四日後인 十二日(丁未)에 開基하여 四月二十五日에 體城을 이룩하고 六月初六日에 女堞을 完功하였다 한다. 石城의 規模에 관한 數値는 築城碑 大丘府邑誌의 營先生條 府城條 및 大丘府 事例 등 忠料에 따라 多少의 差異가 있으나 諸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周遭: 2124步(築城碑 大丘府邑誌府城條 同營先生條)



□ 大丘邑城 地圖

2122步(大丘府事例城堞条)

城高: 11尺(營先生) 24尺(府城)

10尺(城堞) 西南 18尺 東北 17尺(築城碑)

女堞: 955 (營先生 府城 城堞)

819 (築城碑)

上記規模를 現行 미터法으로 換算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周遭: 2124步를 周尺으로 使用한 것으로 換算했을때

$2,124步 \times 6(周尺) \times 20.81(cm)$

$= 265,202.64cm \approx 2,600m$

營造尺으로 使用했다고 보고 換算하면

$2,124(步) \times 3.8(營造尺) \times 31.22cm$

$= 251,982.864cm \approx 2,500m$

城高: 18尺

周尺을 使用했다고 보고 換算하면

$18尺 \times 20.81cm = 374.58cm \approx 3.8m$

營造尺을 使用했다고 보고 換算하면

$18尺 \times 31.22cm \approx 561.96 \approx 5.6m$

上記數值를 검토해볼때 당시 周尺을 適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周遭는 약 2.6km 西南側 城高는 약 3.8m 정도로서 추정할 수 있다. 이 城에는 東西南北 四正門이 있었고 門에는 譙樓(門樓)를 세웠는데 東에는 鎮東門 西側에는 達西門 北側에는 拱北門이라 稱하고 특히 南門에는 嶺南第一閤이라는 扁額이 걸려 있었다. 이밖에 東西에 東小門 西小門 두개의 暗門과 望樓로서 東將台, 南將台, 北將台, 望京樓가 있었다. 築城의 完功에는 約 5個月의 時日이 걸렸고 動員된 延人員은 78,584人이었다. 全体 城壁을 100牌로 나누고 各牌에 牌將 1人을 두어 各其 分담 築城한 것으로 觀察使 自身이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守城에 必要한 各種 機械를 具備한 修城倉을 세우고 不意의 事態와 後日의 修城에 對備하였다. 이듬해인 英祖十三年(1737) 二月 上浣에 嶺營築城牌를 建立하였다. 現存 築城牌는 甲子年 高宗五年(1864)경 겨울에 重修한 것으로서 旧觀 德亭址에서 旧達成郡庁(大邱市 中區 東城路二街) 附近에 옮겨졌다가 다시 南山洞 大邱鄉校에서 壽城區 忘憂公園內에 保存되어 地方文化財로 指定되었다. 以後 百三十余年의 歲月이 흐르는 동안 雉堞은 把毀하고 門樓는 朽傾하여 嶺南 雄藩의 體貌가 凋弊하였으므로 이에 興宣大院君 摠政下인 高宗七年(1870) 大邱府城의 一大修理가 斷行되었다. 修築時 工事 內容을 修城牌에 의해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體城: 新築97步 改築118步 補 1,409步

雉堞: 新築 2,680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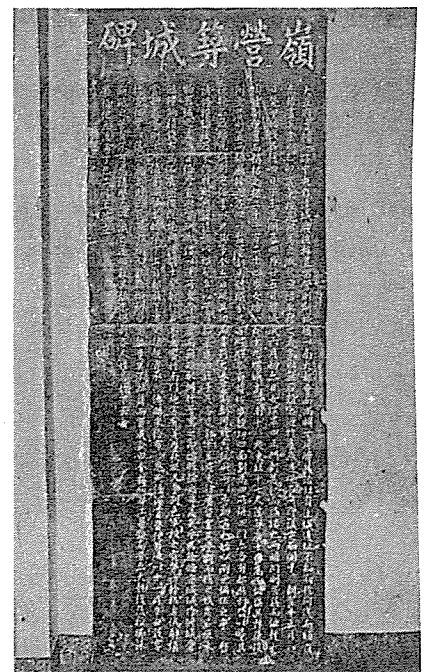
門樓公廡: 新築72門 重建37門 重修517門

公廡各處: 修補 256門

以外 東西南北 四門의 譙樓(門樓) 望樓를 重建 乃至 重修하고 標樓(望台)를 東은 定海 西는 壽勝 南은 宣恩 北은 望京이라 改名하였다. 이중 望京樓는 達城公園에 保存되어 오다가 철거후 사진만 保存되고 있다. 修城工事が 完工하자 觀察使 金世鎬 撰文의 修城牌가 忘憂公園內 築城牌와 나란히 現存하고 있다.

3. 邑城의 撤去動機와 現在의 位置

邑城의 撤去는 1906年(光武 10年) 10月 當時 慶尙北道 觀察使署理兼 大邱君守였던 朴重陽은 大邱의 日人居留民會의 請에 따라 大邱府城撤去에 對한 報告書를 中央政府에 올렸으나 不許可 返送되었고 벌써 城壁撤去가 상당히 進行되고 있었다. 大邱居留民會에서는 東門 西門 南門 北門으로 区分하여 담당자를 결정하고 作業을 分擔시켜 撤去를 推進케 했다. 1907年 2月 日人이 大邱城壁 改修請願書



嶺營築城碑損本 (1737年 建立)

를 提出했으며 朴君守는 이에 同調하여 大邱 全域의 洞民을 動員 公役으로서 撤去를 完了케하고 3月 1日부로 政府에 報告했던 것이다.

〈報告內容〉

城壁撤去事 内部指令內開城壁基址樓 門을 請與外人은 是何拳措인지 甚不妥當 하니 決不可認許이고 從他方針을 研究하여 道路를 開拓하여 人民에 便宜와 道郡에 公共利用할 計劃을 該道觀察使에게 報明하여 自道로 轉報 本部케할事 이시온바 各門과 望樓를 從長 利用하며 城堞 基址에 道路를 開拓하를 方略은 次第 報明 請願하오려니와 至於土塊하야는 基所危險은 不可 暫時拋置 이온대 西將台에서 西門外 지난 土石을 除去하와 交通에 防障은 免하였사오며 西門에서 西小門을 徑하야 望京樓까지 一帶에 上壁은 自三月五日 為始하야 三週日內에 土沙를 一個人에 所用으로 無遺 撤去하갓사오며 望京樓에서 北門을 徑하야 東將台가 지난 既成坦地이오나 東將台에서 東門及 東小門을 徑하야 南將台가 지난 土塊는 撤去할 費用이 無할 뿐더러 別無 措處之方故로 大邱市(三十八個洞)民에게 命令하야 自前走役例에 依하야 市民에 義務로 每一個洞에 土壁幾間式을 剛定擔任하야 撤去케함이 如何하을는지 此是 大邱市民에 義務의 事業일 뿐더러 大邱市民에게는 春秋等戶布錢을 徵收치 아니하는 故로 市民은 自前으로 公役에 赴參하는 慣例가 有하음기에 各洞에 分定한 伴記를 粘連하와 茲에 報告함. 光武十一年三月一日

英祖十二年에 石築으로 改築된 城堞은 高宗七年 觀察使 金世鎬 赴任時에 修築이 있었을 뿐 穩全했던것이 光武十年九月부터 同十一年四月사이에 完全 毀破되었다. 이와같이 撤去動機는 道路開設과 市街改修라는 目的을 떠나 日人들 間의 利益問題와 大邱의 護國牧民을 爲해 築城된 邑城이 韓日人 사이로 區副하는 障壁의 役割을 하고 排日의 象徴으로 存在하였기 때문에 反對로 日人에게는 經濟的 支配擴張과 排日의 象徴物로 障害되었으므로 排日的 象徴인 城堞을 毀破하고 城內의 經濟權을 掌握하기 爲해 謀議하여 永久保存되여야 할 固有의 遺蹟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邑城에 構築物로서 四個의 門樓와 二個의 暗門城堞 四隅에 望樓四個가 있었으나 이들중 四大門의 現位置는 다음과 같다.

- ◎ 北門(拱北門) —大邱警察署에서 北으로 뻗은 길과 北城路가 交叉되는 現 中部 保健所앞 네거리상이고,
- ◎ 西門(達西門) —大邱警察署에서 西쪽으로 뻗은 길과 西城路가 交叉되는 네거리상이며,
- ◎ 東門(鎭東門) —旧東城路派出所앞 네거리로서 現在 韓一劇場건너편 地下道入口이다.
- ◎ 南門(嶺南第一関) —大邱警察署에서 南쪽으로 뻗은 鍾路와 南城路가 交叉되는 네거리상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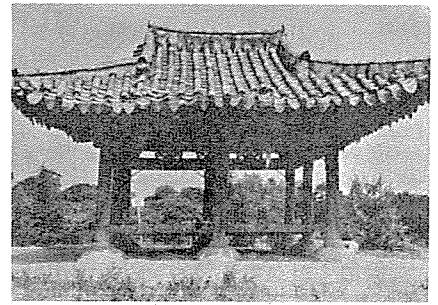
4. 南門(嶺南第一関) 規模와 重創 意議

南門의 規模는 아무런 記錄이 없어서 알길이 없으나 철거 당시의 南門사진과 南門의 位置상의 地籍規模와 당시 建物인 宣化堂(지방유형문화재 1호)과 全州豊南門 및 朝鮮後期의 官衛建物들과 比較해 볼때 지붕 기와골로서 대충 推定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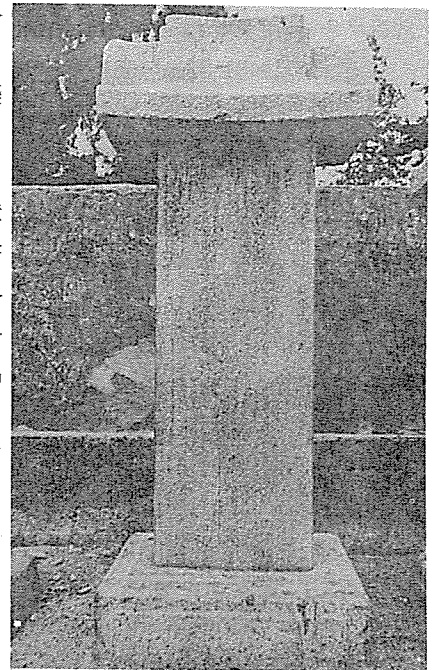
첫째: 南門址로 思慮되는 鍾路区域이 南城路쪽으로 小方形으로 突出되어 있어서 이는 道路区副理때 當分간 남아 있어서 門地가 公的인 것이어서 旧区域 그대로 放置해둔 것이라 생각되며 突出한 部分의 幅이 약 13m이므로 全州豊南門의 規模와 비슷하다.

둘째: 豊南門一層 정면의 기와골수가 61條 二層 정면의 기와골수가 51條인데 南門의 경우 一層 57-60條 二層이 47-49條이므로 비슷하고,

셋째: 南門해체 당시 촬영한 宣化堂建物과 比較해볼때 柱間 18.2m에 기와골 57條이므로 $18.2 \div 57 = 0.319m$ 이어서 中互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計算하면 다음과



□ 망경루(望京樓)
1969년 건물이 남아
해체하기 전에 찍은 望京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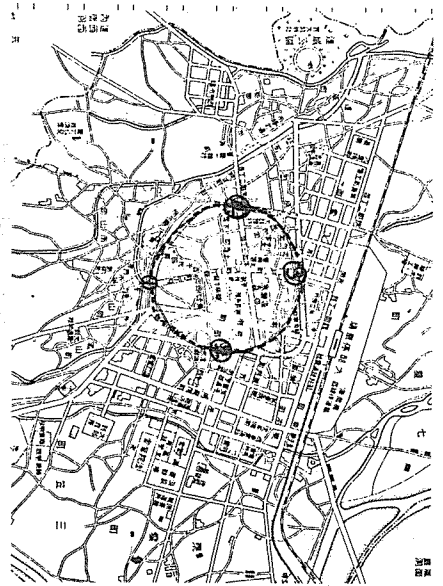


大邱邑城修城碑 (1870年 建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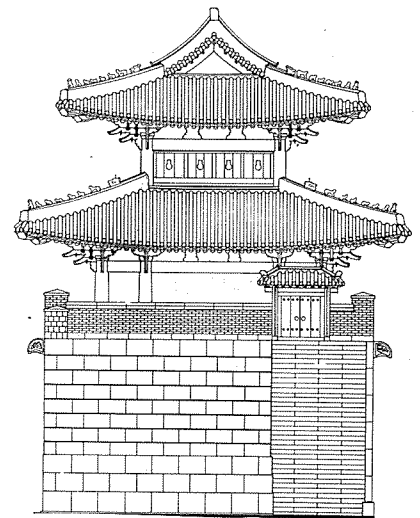
같다.

柱 間	기와골수	1 条의길이	柱 間 隔
협 간	12	0.319	3.828 m
정 간	17	0.319	5.423 m
협 간	12	0.319	3.828 m
계	41		13.079 m

以上과 같이 몇가지를 綜合해볼때 南門의 規模를 추정해볼 수 있다. 壬辰倭亂과 丙子胡亂後 大邱의 護國牧民을 위해 築城된 大邱邑城을 대표할 수 있는 護樓로서 南門을 들수 있겠다. 이같은 邑城이 韓民族의 文化傳統과 自主의獨立의 象徴으로만 保存되어 오면서 民族에 對한 認識을 새로이 하고 自主獨立의 國權維持를 祈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城堞이 外勢및 外勢同調者로 말미암아 깨끗이 毀破當하고 말았으며 國權의 마음과 文化傳統의 象徴을 잃은 大邱의 市民은 團結을 위한 求心을 잃고 被壓迫民族으로서 苦痛을 받아왔다. 八一五光復 自主獨立의 回復된 우리 民族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우리 大邱市民은 많은 文化 유적을 잃었으며 國力培養과 外侵의 苦痛을 격지 않기 위해 마음의 求心을 再建設하고자 1977年 大邱市長인 鄭採鎭이 주관하여 重創計劃을 수립 1980年 준공하게 되었다. 비록 大邱府城 全体를 복원치 못하고 記念碑의으로 南門만 重創을 보게 되었으나 破壞 당시 일어난 諸般情勢를 거울삼아 國權回復과 더불어 護國牧民의 文化傳統思想을 살려 정신 文化開發에 寄與하고 이로 하여금 嶺南碓都의 市民意識을 涵養함으로 未來 發展의 象徴으로 市民의 求心을 具現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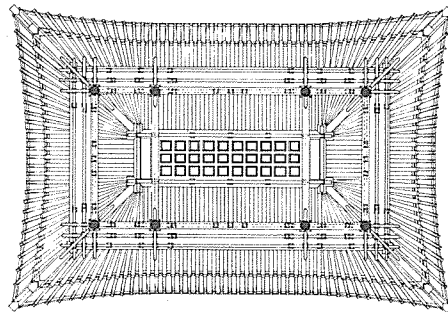


□ 1924年度 大邱市地圖
點線이 城廓址임.
 ① 南門址 ② 東門址 ③ 北門址 ④ 西門址



〈參考文獻〉

1. 嶺營築城碑
2. 修 城 碑
3. 大丘府邑地
4. 宣祖實錄 卷四十四와 卷四十五
5. 顯宗實錄 卷九
6. 英祖實錄 卷四十
7. 日 省 錄
8. 懲 忠 錄



南門(嶺南第一關) 重創設計概要

設計 大亞建築設計事務所

徐 正 男

設計담당 韓運吉 張錫河 田相根

位 置 大邱市 壽城區 晚村洞(忘憂公園內)

대지면적 4000坪

연 면 적 門樓 一層 135.42m²

二層 62.16m²

計 197.58m²

城廓 694.2m²(門數포함)

층수 지상 3층(城廓포함)

구조 철근콘크리트 한식구조

마감 城廓 화강석 門樓 단청

최고 높이 20.51m

